

24. 여원(麗元) 상륙전(上陸戰) 벌인 함덕포(咸德浦)⁴⁷⁾

- ◎ 상륙전(上陸戰) 성공(成功)은 김방경(金方慶)의 양동작전(陽動作戰)
- ◎ 김통정(金通精)은 명월포(明月浦)로 출동(出動)하여 포진(布陣)

함덕(咸德) 해수욕장은 제주 사람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유명한 곳이다. 해수욕장으로는 이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곳이 7백 년 전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이 상륙할 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전적지(戰迹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전략(戰略) 뛰어난 두 장수

예나 지금이나 상륙전 때 유리한 목표로는 넓은 사장 지대를 꼽게

47) 『한라일보』 제130호 (1989. 09. 23).

마련이다. 더구나 제주도처럼 거의 모든 해안선이 거친 바위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좀처럼 그 적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몇 안 되는 넓은 사장은 한번쯤은 그 대상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삼별초(三別抄)의 난 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와 여원군(麗元軍)의 상륙에 대비하여 병력을 배치할 때 함덕포도 바로 그 거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삼별초의 군사가 항상 주둔하면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전초기지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상륙전은 고도의 전략전(戰略戰)이 도입되면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김통정(金通精) 장군과 김방경(金方慶) 장군의 싸움에 관하여 많은 전설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가운데는 뒷날 터무니없는 것으로만 돌릴 수 없는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 새삼 놀란 일이 있다.

두 장군은 필자가 들었던 것처럼 모두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전략가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다. 두 장군의 전략에 의하여 전세가 좌우되었던 당시의 상륙전을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여기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원연합군이 삼별초를 치기 위하여 1만 3천여의 대병단을 편성하고 반남현(潘南縣, 전남 나주)에 집결한 것은 1273년(원종 14) 2월이었다. 여기서 중군병마원수(中軍兵馬元帥) 김방경은 생각했다.

극비(極秘)의 작전(作戰)을 세워



| 김방경(金方慶)의 양동작전(陽動作戰)으로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이 성공한 함덕(咸德) 상륙전(上陸戰) | 이 그림은 당시를 상상한 정창섭(丁昌燮)의 작품. 향몽유적전시관 소장.

그는 진도(珍島) 싸움에서 번번이 삼별초에게 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자신도 삼별초의 전략에 말려 하마터면 죽을 뻔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삼별초의 뛰어난 전술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설불리 쳐들어갔다가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여러모로 궁리 끝에 극비의 전략을 짜냈다.

그는 연합군을 이끌고 그해 4월 초 우선 추자도(楸子島)에 상륙하였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혼란작전이었다. 원목과 께짝 그 밖의 많은 나무들을 모아 제주바다로 띄워 보냈다. 삼별초는 적이 상륙해오는 것으로 알고 쫓아갔으나 속은 것을 안다. 이 작전은 계속 되



一九八四年三月 丁昌燮 權勳七 徐庸宣 畫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 함덕(咸德) 상륙전(上陸戰) | 1984년 3월 정창섭(丁昌燮), 권훈칠(權勳七), 서용선(徐庸宣) 화(畵)

풀이 되었다. 그때마다 삼별초는 신경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20여일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려 놓고 정작 상륙전을 감행한 것은 4월 28일 새벽이었다. 이때 김방경은 양동작전(陽動作戰)을 폈다.

좌익군(左翼軍)을 한 발 앞서 출발시켜 비양도(飛揚島)에 상륙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김통정은 적이 명월포로 상륙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늘 적의 상륙 제1후보지로 명월포를 꼽고 있었던 것이다. 김방경은 이때 김통정의 이 허점을 꿰뚫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김통정은 자신이 직접 삼별초를 이끌고 즉각 명월진으로 출동했다. 비양도 앞바다에서부터 명월진에 이르기까지 병력을 배치하고 적의

상륙에 대비하였다. 도해(渡海)작전으로 적이 극도로 피로해 있을 때인 상륙전 때 일제히 반격하여 결정타를 가하자는 작전이었다.

복병(伏兵)의 저항(抵抗) 받았으나

김통정이 이끈 삼별초가 명월포 일대에 포진하자 비양도의 연합군은 화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며 요란을 떨었지만 실제 상륙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한편 삼별초의 주력부대가 명월진으로 출동하여 포진한 사실을 알자 김방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 중군(中軍)을 함덕포(咸德浦)로 돌려 기습 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삼별초를 명월로 따돌리고 쉽게 상륙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연합군은 의외의 복병을 만나 고전하게 되었다.

이때 삼별초는 이시화(李時和)의 지휘 아래 언덕과 바위틈에 미리 매복해 있다가 연합군이 상륙해오자 일제히 기습을 감행하였다. 이날 거센 하늬바람으로 밤새 풍랑에 시달렸던 상륙군은 뜻밖에 당한 기습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삼별초의 저항이 너무 맹렬하였으므로 연합군 군사들은 좀처럼 쳐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본 김방경은 직접 진두에 나서서 호령하고 군사들을 질타하였다. 이때 연합군의 대정(隊正) 고세화(高世和)가 선봉이 되어 적진을 뚫고 쳐들어갔으며 날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장군 나유(羅裕)도 군사를 이끌고 공격에 앞장섰다. 이에 고무되어 연합군이 일제히 총공격을 감행했다.

삼별초는 끝까지 용감하게 저항하였지만 수적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서우봉과 함덕포(제주시 함덕리)!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한 여원연합군은 비양도에 좌군을 상륙시킨 후 교란작전을 폈다. 하지만 정작 주력군인 중군은 김방경의 지휘아래 함덕포로 상륙하였다.

수가 없었다. 이 함덕 상륙작전은 마침내 연합군의 성공으로 끝났다.

역사에 가정(假定)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김통정이 연합군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그의 주력부대를 함덕으로 투입시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가 바뀌어졌을 것만은 틀림이 없다. 설령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장군이 겨룬 전략은 결국 김방경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병력이나 화기 등 모든 여건이 절대 우위에 있었던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 함덕은 여름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 더위를 식히고 즐기는 해수욕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삼별초의 난과 함께 치열했던 상륙전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던 사실은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